

# 학부모 등 300명 정보 놓칠세라 '깨알 메모'

**정시지원 설명회 가보니**  
**'불수능'에 뜨거운 관심**  
**학부모간 정보 교류 활발**  
**자료 담으려 카메라 세례도**

14일 광주교육정보원 앞은 평일 오후답지 않게 북적였다. 광주시교육청이 마련한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분석 설명회'에 참석하러 온 학생, 학부모들은 오후 2시인 설명회 훨씬 전부터 교육정보원을 찾아 대학별 전형일정 등을 담은 자료를 들여다봤다.

420석 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 대부분이 채워질 정도로 설명회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지난 7일 수능 성적표가 나온 뒤 처음 열린 정시모집 설명회인데, 예상 밖의 '불수능'으로 전년도에 비해 대학별 지원가능점수가 달라지거나 중위권 경쟁률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잇따른 점도 한몫했다는 게 교육계 분석이다.

학부모들은 옆자리에 앉은 학부모에게 "자기 아인 (특정 대학에 원서 낼 정도로 성적) 괜찮아?"라며 서로 얘기를 나누는가 하면, "이 배치표 점수는 커트라인인가요?"라며 설명회장을 지나가던 교육청 관계자를 붙잡고 자료집 내용을 묻다가도 행사가 시작되자 한 마디라도 흘려듣지 않겠다는 듯 집중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장광재 광주시교육청 진학지원단(승고교 진로진학부장) 팀장과 서점권 서울여고 교사 등 대표적 광주 입시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섰다. 학부모들은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들을 때면



『경청』 14일 오후 광주시교육정보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분석 설명회'를 찾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입시 전략을 경청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놓칠세라' 메모장에 적어놓는가 하면, 특정 대학·학과에 지원 가능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을 담은 프레젠테이션을 받아가기 위해 연신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버튼을 눌러댔다.

학부모들은 "수시 모집 추가 합격 발표가 오는 28일이고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오는 31일부터 시작되니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대화하고 살펴본 뒤 25일 이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변환점수까지 계산해주니 꼭 확인해

라", "(전년도 의대의 경우) 정시모집 인원이 전년도(11명)보다 늘어났고 좋아하지 마라. 전국 경쟁자들이 다 몰릴 수 있다", "고학점구 II 지원자들이 예년에 비해 줄었고 국·공립, 사립대 의대에 대한 선호도를 고려하면 서울대 지원 가능 점수가 예상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강사의 말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시모집의 경우 앞서 6번의 원서를 낸 수시모집에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거나 애초부터 수능 성적위주로 뽑는 정

시모집을 통해 대학을 가려는 수험생들이 대상이다. 그나마 매년 정시 모집 문이 좁아지고 있는 만큼 수능 성적을 십분 활용한 '맞춤형' 전략 수립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시 지원 설명회 뿐 아니라 개인별 대면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 문의가 많다"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입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3 해질 17:22 달출몰 18:57 달짐 08:21

**도로 결빙 주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눈이 쌓이고 도로가 어는 곳이 있었다.

◇지역별 날씨(℃)  
 광주 구름맑고눈 -2/3 보성 맑음 -3/3 목포 구름맑고눈 0/4 순천 맑음 -1/5 여수 맑음 0/5 영광 구름맑고눈 -2/3 나주 구름맑고눈 -2/3 진도 구름맑고눈 1/4 완도 차차흐려져눈 2/4 전주 구름맑음 -4/3 구례 맑음 -4/3 군산 구름맑고눈 -3/2 강진 구름맑음 -1/4 남원 구름맑음 2/5 해남 구름맑고눈 0/4 옥산도 구름맑고눈 6/3 장성 구름맑고눈 -3/3

◇바다 날씨  

지역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서~북	2.0~4.0	북서~북	2.0~4.0
	면바다	북서~북	3.0~4.0	북서~북	3.0~4.0
남해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5	북서~북	1.0~2.5
	면바다(동)	북서~북	2.0~4.0	북서~북	2.0~4.0
남해서부	면바다(서)	북서~북	2.0~4.0	북서~북	2.0~4.0

◇생활지수  
 뇌졸중 높음  
 감기 높음  
 체감온도 관심

◇주간 날씨  

날짜	16(금)	17(토)	18(일)	19(월)	20(화)	21(수)	22(목)
날씨	☀	☀	☀	☀	☀	☀	☀
기온	-4/5	-2/9	1/11	4/11	5/12	3/10	3/9

## 광주 시각 첫 눈...내일까지 최대 5cm

평년보다 19일 늦어

기온 영하권으로 '뚝'

14일 광주에 때늦은 첫눈이 내렸다. 전남 동부권을 제외한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는 15~16일 눈이 내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이동한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상공을 지나면서 만들어진 눈구름이 유입되면서 광주에 올 들어 첫눈이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광주의 첫눈 관측은 지난해(11월26일)보다 18일, 평년(11월25일)보다 19일 늦은 것이다.

15~16일 광주·전남에는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적설량은 1~5cm 가량이다.

눈과 함께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15일 구례와 곡성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눈은 16일 새벽부터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점차 그칠 전망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대통령 퇴진” 현수막 걸어라” 또 압박

행자부, 공무원 노조 징계 요구...노조 “봉사 대상은 국민”

행정자치부가 광주시청과 5개 구청 공무원 노조가 내건 '박근혜 대통령 퇴진' 현수막 철거와 노조 간부 징계를 재차 요구하며 지지체를 압박하고 있다. 노조 측은 "공무원이 봉사를 대상은 온갖 비위 의혹의 중심에선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라며 물리칠 뜻이 없다는 입장이다.

14일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 13일 오후 시·구청 당국에 2차 공문을 보내 오는 16일까지 현수막 철거와 관련해 조치(징계) 계획을 문서로 통보할 것을 요구했다. 행자부는 지난 12일 전공노 광주본부가 내놓은 '국정농단 비호 행자부 해체' 성명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노조 측은 전했다.

행자부는 공문을 통해 "소위 전공노 광주본부가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청사에 내건 것은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에 반하는 행위"라며 "지방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와 옥외광고물관리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공노 광주본부 관계자는 "행자부의 조치는 국정농단을 한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라며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현수막을 계속 내걸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공노 광주본부는 지난 4일 광산구청을 시작으로 7일까지 광주시청과 5개 구청 청사 외벽에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김형호기자 khh@

## 이주여성들에겐 너무 힘든 농촌살이

공동모금회 설문...장시간 노동·저임금·성폭행 위험 시달려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대부분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는 성폭력 피해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14일 밝혔다.

이들 단체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지난 5~8월 베트남·캄보디아 출신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2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상자의 65.9%가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고 있으며 76.8%가 월평균 휴일이 2일 이하라고 대답했다.

월급은 59.2%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130만 원 이하라고 대답했고, 80.6%가 고용주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지내는 것으로 집계됐다. 숙소는 대부분 외딴곳에 있는데, 특히 내부가 좁고 위생·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농산물 재배 업종의 주거환경이 열악해 67%가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에서 지내고 있고, 고용주 등이 마음대로 숙소에 드나든다는 답변도 35.7%에 이르렀다. 욕실이나 침실에 잠금장치가 없다는 답변도 각각 26.5%였다.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사례는 12.4%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4%가 고용주나 관리자에게 피해를 봤다. 심층 인터뷰에 응한 피해자 5명은 가해자가 어깨를 꺼안거나 영영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한국말이 서툰 데다 경찰서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연남뉴스

## 근로자 사망 광양 철강기업 작업중지 명령

고용노동부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최근 근로자 2명이 사망한 광양시 광양국기산단 내 A철강기업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여수지청은 백시 등이 로 내부 밑단부에서 바닥을 파쇄하던 중 착암기 진동에 의해 상부에서 떨어진 내화재 덩어리에 맞아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가 나자 여수지청은 9명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해당 작업에 대한 중지 명령을 내렸다. 여수지청은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 후 위험 상황에 대해서는 행정·사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우체국 예금**

마음을 전하는 우체국 Post Pay

좋은 친구, 우체국 하이브리드 여행 체크카드!

하이브리드 여행 체크카드 이용 혜택

- 교통: 항공, 고속버스, 철도, 여객선 택시 렌터카 숙박: 특급호텔, 1~2급 호텔, 콘도업종
- \* 기타 업종 이용 시 실적에 따른 포인트 적립, 대중교통 후불결제, 소액신용결제, 그린서비스

우체국금융홈페이지 : www.epostbank.kr  
 우체국금융고객센터 : 1599-1900/1588-1900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소리, "우체국 택배 왔어요!"

우체국 국제특송 EMS

전남지방우정청

우체국 국제특송 EMS